강사: 양미강
소속: 아시아 역사연대 위원장
주제: 역사대화를 위한 한일 시민 사회의 역할
일시: 2006년 09월 26일 (12 : 00 – 14 : 00)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를 다루면서 갈등이 한 가지 있었는데, 머리로 하는 공부의 한계를 느껴 현장에서의 연구를 어떻게 그것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었고, 어떻게든 식구를 줄이기 위해 위안부 이외에도 근수공장의 취직시키기도 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들은 모두 이 위안부를 경험했고, 대만,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여성들이 이에 속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를 의문을 계기로 2000년 12월 민간 법정을 열어 일본을 성노예국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위안부 문제를 항상 피해의식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이 민간 법정을 느낀 접은 한국의 역사에 골다공증과 같이 역사적, 법적 구멍이 많았다는 것이다. 법정을 진행하면서 거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일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 단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 가를 알고 나서는 할말을 잃기도 했다.
민간법정을 열면서 국제 연대를 하게 되었는데, 국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국제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의 성공 케이스로서 미국의 결의안을 생각할 수 있다.
2001년 후쇼사가 교과서에 위안부와 남경대학살 문제를 삭제함으로써 교과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라는 모임이 생기게 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 허점이 많은 한국 교과서를 다시 보기도 하였다. 일본 문부성의 삭제 사건에 대해 한 일본인이 문부성에 소송을 걸게 되었고 이것이 운동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는 교과서 바로잡기 모임이 생기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배상과 권리 투쟁에 치우쳐 있어서 아무 베이스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단체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도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운동의 존속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과서 바로 잡기 운동에서 한국, 일본의 구도에서 중국을 끌어들이게 된다.중국은 아직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의 70년대 상황과 비슷하였다.
동아시아 평화 포럼이라는 한.중.일 공식 채널을 만들고, 첫 모임은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 모이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가벼운 제안으로서 대안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 제안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교과서를 만들자는 제안으로부터 목차를 만드는데 2년이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각 국의 단체들이 목차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국 중심의 해석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집필을 하는데 1년이 걸렸고 마지막을 수정하는데 1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 교과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니고 많은 수

정과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를 만드는 원칙의 하나로서 한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병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끌어 내어 기록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잦은 연락과 접촉이 필요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각 단체간의 신뢰를 쌓게 되었고,다른 사람의 주장의 배경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신뢰야 말로 하기 싫은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관계이고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2005 5월에 4년간의 시민운동의 결과물로서 드디어 책이 출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우익 세력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2005년의 후쇼사의 대응도 생각했어야 했다.

수정작업의 일환으로서 민관연 네트워크 형성을 이용하여 자매도시를 통해 수정하고 의견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현지에서 고군분투 하는 일본단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당시 떠오른 2가지 생각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일본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연결하는 끈은 무엇인가도 역사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신문사의 경우 대부분의 메이져 신문들은 시민사회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을 모금하여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어 일본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자극적인 광고는 일본 신문의 좋은 보도거리가 되어 편파보도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광고는 일본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

운동을 하면서 국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한국인이 때문에 운동하는가를 돌이켜보았다. 그러나 운동하는 이유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교과서 문제는 첨삭의 문제가 아닌 역사 갈등의 극복 교과서로부터 발생하는 파급적 효과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였다.

일본이 청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본의 우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이슈의 국제화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었고, 외교카드로서도 많이 쓰여왔다. 그리고 그 그물망은 유럽의 시민사회 특히 독일과 폴란드의 예가 시사하는 것처럼 풀 뿌리 운동을 통해 그물망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결단보다 바닥에서의 교류와 노력의 선행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